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대학으로 가는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특히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야 될 길이 정말로 멀고 멉니다. 예전에는

이 대학으로 가는 길이 수능 하나만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멀더라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습니다.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길이 굉장히 많죠. 많은 건 아니고
수능도 있고 교과 내신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도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죠. 그런데 길은 네 가지이긴 하지만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아요. 내신 공부도 해야 되죠. 숙제도

지금 소위 얘기해서 겁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가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해서 리서치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보고서 내고 발표하는 거. 이게 한 과목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번에 개정교육과정은 굉장히 많은 교과에서

이런 활동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숙제인데 해줘야 돼요.

왜? 교과세특이 있으니까 여기에 수능도 공부해야 됩니다.
굉장히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많아지게 된 계기는요. 물론 이런 교육 방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문제만 풀었습니다. 쉬워요. 쉬웠는데

막상 이렇게 문제를 푸는 교육 방식이 굉장히 후진적이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뽑은 인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인재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재들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인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바꾸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쓰고 밑에
뭐 썼어요? 그렇죠. 피처링으로 진로선택교과라고 썼는데

자, 1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올라갈 때 많은 교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여름방학 전에 가수요 조사를 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때 2차, 3차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한 네 번째 때 실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학종에서 이 교과 선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진로선택교과, 일반선택교과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릴 겁니다. 이 점 들으시면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
교과를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많이 알 겁니다. 지금 2학년 때부터 작년 1학년이죠. 작년

1학년이었던 지금 2학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뭐 아실 겁니다. 크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과정중심 교육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정중심
교육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과중심 교육이긴 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과까지 가는 과정도요.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초로 이 결과까지 가는 과정을 평가라고

하는 영역에 집어넣은 교육과정이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자, 과정평가를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수행평가 볼 때 산출물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어떤 토의를

했고 중간에 어떤 결과를 거쳤으며 이 아이들이 어떤 자기
평가라든가 동료 평가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점점

시험만 보고 숫자로만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수행평가가 수행평가가 아니고 그전에

해왔었던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시가 되고 시험
본 결과만 중시 여기게 되니까 문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도요. 평가 요소로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과정평가를 실시하긴 하지만 과정평가에 들어가는 어떤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굉장히 폭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평가
같은 경우 1점부터 10점까지 따다다닥 매기는데 과정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2단계 내지 3단계로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도
2단계 내지 3단계 평가긴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결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성장을 하게 되고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과정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수행평가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행평가가 거의 모든
교과에서 50% 이상 차지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의 모든 수업은 시험이라고 하는 결과평가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희생된 게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에서 과정평가가 도입되고 결말평가보다는

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진도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입시 전형 자체가

수능만 보는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커졌고 특히 수시에서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도 확보보다는 수업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요. 선생님들이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진도만 나갈 경우에는 다 강의

수업을 하니까 학생의 관찰과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수업 자체가 진도 확보가 메인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같이 풀어나가고 학생들의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관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도 바뀌게 되고요.

선생님의 역할도 단순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어떤 역할보다는
학생들의 해나가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리고

촉진하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시면 교육청에서 나온 과정평가에 대한 설명인데

수행평가랑 굉장히 흡사하죠. 보시면 수행평가 과정을 강조하고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학습자의 발달을

위해서 피드백을 줘라. 특히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결과와 함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적이 낮은 아이들도 과정 속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행평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좀 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게 실제로 보여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같이 하는 거, 협업하는 거, 조별 활동 그런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보다는

실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연결하는
수행평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학생부에 온연히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인 과정중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시행착오 여러 가지 겪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점차

이 시행착오를 수행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중심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학생참여 기회의 확대입니다. 이거는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 이전까지는 결말 평가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성적만 잘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참여하는 과정 자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를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 결말을 향해서 다가가는 모든 장면
장면이요. 기록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참여에 열의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과세특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1학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종을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리서치

같은 과제가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보통 이전에 이제
부모님들, 지금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던 때와는 정말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과제 같은 게 대학교 가야 그나마
리포트 쓰고 프로젝트 했는데 이제는 고1 때부터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수준의 그 프로젝트와 보고서 양을요. 지금
1학년들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는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문제는 이 과제가 수행평가일
수도 있지만 수행평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가는 성적으로 제시되는 정량평가와 교과세특에 적히는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의 과제 자체가

수행평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아이가 얼마나 해냈고 얼마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교과세특이 적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쓸 거리가 많아지죠. 이전까지 학생부가 빈약했던 이유는

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쓸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
선생님들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써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학생을 다 쓸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에서 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고 적은 걸 학생부에 적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가 질적으로 우수해지죠.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 우수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은

진짜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건 교사건
간에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참여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죠. 바꿔 얘기하면
수업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니면 최소한 자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문이과

통합교육이에요. 현재 고2는, 고2도 2015 개정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문이과 통합교육은 아닙니다. 그냥 수능 자체가

탐구 영역,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쪼개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문과, 이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고2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데 지금 고1은요. 수능 체계 자체가 과탐, 사탐이 쪼개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진정한 문이과 통합교육이 지금 현재 고1부터 진행이
돼요. 당연히 문과, 이과의 구분이 2학년 올라가면 당연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요. 공통교과라고 해서 같이
배워요. 같이 배우고 모든 전교생들이 통합해서 성적이

매겨지겠죠. 그리고 2, 3학년 때 비로소 이제 자신의 진로라든가
전공에 맞는 교과를요. 직접 선택을 하는 선택교과 시대가

열리고요. 특히 문과는 뭐 인문계 영역만 공부하고 이과 갈
애들은 과학만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공계 갈

아이들도 인문계 교과 듣고, 인문계 쪽 가는 아이들도 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면 충분히 물리학 수업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융합의 시대기 때문에 모든 교육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전공 적합성 때문에 이공계 가는 아이들은 과학 쪽, 수학 쪽

집중을 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인문계와 이공계의 어떤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이과 통합교육이

이제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2학년,
3학년 때 올라갔을 때는 문이과가 완전히 갈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재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점차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과와

이과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당연히 문이과 통합교육을 하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교과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돼요. 이전에는 문과, 이과 나눠지다 보니까 딱
정할 수 있는 폭이 산정돼 있어요.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2, 3학년 때 자기의
적성보다는 수능에 선택할 교과를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의 위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 선택의 기준을 수능이 아니라 자기의
전공과 적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굉장히 선택의 폭이 이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넓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1학년 학생이
선택을 하게 되는 2, 3학년이 될 때는요. 정말로 많은

선택교과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게는요. 9개 중의 3개
골라야 되고 정말 심한 학교는요. 모든 교과를 다 오픈하는

학교도 있어요. 대학교처럼 말이죠. 그 경우에는 진짜로 어떤
경우의 수를 짜야 되는데 학교도 문제긴 하지만 이걸 선택하는

학생들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수능 중심으로 많이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의

진로와 전공과 관심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입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전공이 수능 쪽이냐?

아니면 학종을 메인으로 두냐에 따라서 선택교과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수능 쪽에 좀 초점을 맞춘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3학년 때 올라가서 수능 교과에 올인하게 될 그런 교과를
선택할 것이고 반면에 학종 쪽에 올인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융합 쪽으로 가면서 자기의 진로와 전공을 반영한 교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죠. 학교가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을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학교 보통 이게는 다 공개가 돼 있는데 내가
이제 보통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3년 치 교육과정을 다 짜놓고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올려져 있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자기가 배우게 될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선택하려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자기가 2학년 때 어떤 교과를 배우는지 우리 학교에는 어떤
교과가 개설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3학년 때 2학년

때 선택한 교과와 연계해서 어떤 교과를 3학년 때
할 건지까지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2학년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3학년 때 공부할 것까지 연결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교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배웠었던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면 3학년 선택을 못해요.
대표적인 게 과학 쪽이거든요. 물리학Ⅱ를 듣고 싶으면 반드시

2학년 때는 물리학Ⅰ을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과학Ⅱ를 듣기
위해서는 생명과학Ⅰ을 들으셔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도 많이

벌어져요. 미적분을 선택하려면 수학Ⅰ, Ⅱ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위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졸업하기 위해서 인문계 과목, 이공계 과목,
사회, 과학이잖아요. 사회와 과학 과목을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적긴 해요. 그런데
정말로 최악의 경우 자기가 이공계에 올인하다 보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회 교과를 선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졸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이수 단위를

생각하면서 사회와 과학 과목을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조정을 보통 해줍니다. 졸업할 수

있게끔 하여튼 간에 자기가 처해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요.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입니다. 뭐 고1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지만
중3도 볼 수 있으니까 대개 이제 이런 교과가 1학년 때 공통

교과로 많이 치러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그리고 체육. 이게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1 해서 미술,
음악 혹은 기술가정, 제2외국어까지 1학년 때 넣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공통은요. 이거는 다 공통이고 이건 학교마다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상관없습니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가운데 3개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교과예요. 통합사회? 예전에 배웠었던 일반사회 아닌가?
통합과학? 예전에 배웠었던 과학 아닌가? 과학탐구실험?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와 과학은요.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 개념+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게 된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요. 새롭게 배우는 개념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체제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개념을

그대로 들고 와요. 그대로 들고 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수능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대하는 고1 친구들의 모습이 굉장히 힘겨워

보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없어요.
난이도 자체도 어려운 개념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통합사회 특히 통합과학보다 통합사회를 좀 더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합사회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전에
일반사회, 공통사회는요. 이게 단원 자체가 섹션별로 되어

있어요. 지리 파트, 윤리 파트, 역사 파트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섞이지를 않아요. 그냥

책 한 권이긴 하지만 그냥 단원별로 과목이 나눠져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나와

있는 통합사회는요. 일단 단원 중심이 교과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이 예전에는 지리, 윤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에요.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을 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 행복실현,

통합적 관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리죠. 내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윤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조상과 우리

고장의 역사는 어떠한지 역사죠. 이런 개념들이요. 같이
맞물려져 갑니다.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주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한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교과가 지금
어때요? 섞여 있습니다. 같이 배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친구들이 하나하나의 개념은 알아요. 왜?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얘기했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막 넣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지식은 일단 기본적인 거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책 읽어보고 토론해보고 그래서
생각해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원마다 항상

뭐가 있냐면 탐구문제, 탐구활동이 주어져요. 보고서 쓰는
활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대학교처럼 혼자 해야 되는 파트가 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념 이해를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라고요?

중학교 때 개념을 갖고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개념 자체는 대신에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본부터

닦으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면요. 이게 막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수능 출제가 되지 않아요.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나올 때
창의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내신에서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과학은요. 오히려 통합과학이
통합사회보다 좀 더 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일단 과학 개념

자체가 보통 계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 자체가
중학교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과학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수준의 과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계하기 때문에
기존에 1학년 때 배웠었던 과학보다는 좀 더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두세 개의 개념이 섞인 상태에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웠었던 기초와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역시 출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요. 중요한 게
뭡니까? 굉장히 개념은 쉬워요. 그런데 개념 정의 제대로

못하면요. 의외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꼬여서 나오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읽었는데 분명히 우리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지식 전달보다는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탐구하라고 많이 시킵니다. 탐구중심의 학습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활동이 플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탐구활동

뭐죠? 학업역량을 나타내죠. 예전에는 이 탐구활동이 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활동 자체가 수업 자체가 탐구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토론/조사/프로젝트 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교과세특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수업 내에서 끝내기 아깝잖아요. 교내에서 펼쳐지는

많은 활동과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교과세특,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자체를 수업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교내활동에서 풀어가야 되잖아요.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수업 내에서

탐구활동을 하니까 학교 내 활동과 연계를 하기가 쉬워지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잘하셔야 됩니다. 자, 과학탐구실험입니다.

맞아요. 실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혼합돼서
나와요. 대개 출판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크게 1, 2, 3단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역사 속 과학탐구. 두 번째는 생활
속 과학탐구. 세 번째는 첨단 과학탐구인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학탐구 책을 봤습니다. 죄다 실험이에요. 죄다
실험인데 어려운 실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험이 많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수업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험이 많다라는 얘기는 주가 뭐예요?

수업의 주가 보고서 작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개념,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주는 실험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과 발표와 탐구활동이 역시 주가 됩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과학탐구실험이 실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9등급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과학탐구실험은 생각보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많았었다 하더라고요. 여쭤봤더니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 1학년 때부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더군다나 성취도 평가가 3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중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담이 적죠. 실험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은요.

과학탐구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보고서, 다 쓰잖아요.
다 교과세특에 들어갑니다. 발표 다 하죠. 탐구활동 다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교내활동과 연계를
그거를 다시 수업으로 들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과세특의 퀄리티와 차별화가 벌어지죠.
예전에는 굉장히 구별하기 쉬웠어요. 예전에는 이거 활동을

한 애들은 굉장히 좋은 학생들, 없는 학생들은 별로인 학생.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탐구활동이 들어갑니다. 학생부에, 이전에 졸업했던
언니들이 여러분들 학생부 보잖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학교에서 대학 잘 간 애들 정도의 내용인데
너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하지 못하는 애예요. 이런 학생부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학생부가 상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다양한

교내활동과의 연계와 심층적인 탐구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1학년 때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교과입니다. 왜? 수업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학년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공통과목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2학년 때 공부하게 될 선택교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줄 겁니다. 대개 선택교과는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뉩니다. 물론 여기는 전문계 교과가 들어가는데

전문계 교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특목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배우는 교과예요. 물론 이제 일반고더라도 그런 전문계

교과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가져오기도 합니다. 심화수학,
심화영어, 융합과학탐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제가 제치고요. 일반적인 학교에서 많이
선택하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을 위주로 제가 설명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일반선택은 거의 모든 교과가 9등급
상대평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언니들이 오빠들이

형들이 누나들이 배웠었던 2학년, 3학년 일반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즉 수능에 출제되는 교과입니다. 똑같아요. 9등급

상대평가고요. 성취평가가 5단계로 갑니다. 성취평가는 아직
대입에서 활용이 안 돼요. 자, 일반선택 같은 경우는 9등급

상대평가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성적표에 학생부에
원점수 나옵니다. 몇 점 맞았는지, 과목평균도 나와요. 표준편차

나옵니다. 성취도도 나오죠. 성적표에는요. 수강자수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몇 등급인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학생이 수업하는 학교의 수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원점수, 같은 등급에도 불구하고 약간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일반선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출제가 돼요. 되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지식의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뭐가 들어갑니까? 수능 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부해야 될 지식의 양도요.

1학년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2
친구들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즐겁게

공부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런데 2학년 올라왔더니
교과서의 수준이 정말로 많이 높아졌죠. 1학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 진로선택 교과입니다. 진로선택
교과는요. 일반선택 교과와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등급과 표준편차가 나오질 않아요. 뭐만 나온다는 거예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가 나옵니다. 성취도 A, B, C, D, E

그런데 3단계 성취평가죠. A, B, C만 나옵니다. 상중하만 나와요.
수강자수 나옵니다. 그리고 이 A, B, C의 성취도별 분포가

나와요. 뭘 하기 힘들죠? 학교의 수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표준편차가 나오지 않고 등급이 안 나오니까 성취도만

나오잖아요. 성취도는 뭡니까?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평가면 문제 쉽게 내면 다
A 나오잖아요. 이걸 좀 보겠다는 거예요. 적절히 분포시키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선택에 비해서 어때요? 공부할 양이 굉장히
편안하죠. 성적 산출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치열한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성취평가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공부할 때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 출제가 되지를 않아요. 단, 과학Ⅱ 교과는 제외입니다.
과학Ⅱ 교과는 수능에 출제해요. 하지만 진로선택 교과기 때문에

등급과 표준편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선택을
선택하는 기준과 진로선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좀 달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세부적인 교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적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적분은 파란색이죠. 일반선택 교과입니다. 수열의 극한과
미분법이라든가 적분법 같은 게 나오고 당연히 수능 출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는 1학년이 보는 수능에서는요.
선택교과로 나오게 돼요. 자, 당연히 미적분이기 때문에 수학

관련 학과, 통계학과, 경제학. 미적분이 경제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용통계, 금융수학, 정보통계학 쪽. 이런 쪽에 이제

전공을 하고 싶거나 이런 쪽에 관련된 직종으로 진출할
친구들은요. 미적분이 만약에 선택교과라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확률과 통계입니다.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당연히
문과에서 출제가 되겠죠. 수능 출제 여부가 되고요. 수학과

비슷해요. 보통 수학 계열 쪽은 다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인가, 미적분을 선택할

것인가를 뭐로 선택해야 됩니까? 수능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친구들은 이걸

들어야겠죠. 반면에 이공계 쪽으로 가서 미적분 쪽을 선택할
친구들은 미적분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기하,

기하와 벡터라고 했는데 기하가 진로선택으로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능이 출제가 되죠. 대신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된 고2 같은 경우에는 기하는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잖아요. 기하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고1은요. 수능이
출제가 되는 교과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 고2만 빠진 겁니다.

지금 고3은 기하 배워요. 고2는 기하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1은 수능에 나와요. 문제가 생기죠. 고2가, 왜? 재수를 하게

되면요. 기하를 공부를 해야 돼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하는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거의 모든 이공계에서 기하를

넣으라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바로
수능에 넣었어요. 미적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하 역시

특히 이공계 공대 쪽을 갈 친구들은요. 기하는요.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2 같은 경우는 수능에 안 나오잖아요.

더더욱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이걸 볼 거예요. 분명히
이 교과를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볼 겁니다.

이공계에서 학종을 지원할 때는요. 자기가 가는 대학 혹은
가는 계열 자체가 공학계 쪽이에요. 무조건 기하와 벡터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어렵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만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학종은요. 성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도전

여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기하는요. 이공계 쪽이라면
어렵지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자, 실용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실용수학은
굉장히 쉬워요. 수학을 좀 이수하고 싶은데 미적분, 기하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 쉬운 실용수학을 선택해도
됩니다. 당연히 수능 출제는 되지는 않아요. 진로선택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이거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나 이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이거, 이거, 이거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실용수학은 어때요?
수준이 조금 낮은 수학입니다. 당연히 정말로 이 정도 학과를

갈 친구들은 수학인 애가 실용수학 하면 안 됩니다. 왜? 애만
개설돼 있으면 선택하면 좋아요. 그런데 애만 개설된 게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개설이 되잖아요.
그쪽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학 쪽, 공학 쪽 친구들은요.

실용수학이지만 수학은 이거는 조금 선택을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경제수학입니다. 딱 나오죠. 경제와 관련된

수학이에요. 경제지표,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 수열과 금융.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수능 출제는 당연히 안 돼요.

비슷하죠. 수학, 통계, 수리, 정보통계, 수학, 응용통계. 특히
경제가 붙기 때문에 상경계열 쪽 있죠? 금융수학, 금융통계,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약간 문과 계열 쪽이긴 하지만
경제수학을 선택해주면 좋겠죠. 만약에 개설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경제수학은 상경계를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개설을
하는 추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경제수학이 개설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꿈이 이공계 쪽은
미적분이거나 기하 선택하면 되니까, 상경계열 쪽이라면

미적분을 선택하고 하나 더 경제수학을 선택을 해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상경계열 쪽은 인문계열이긴

하지만 수학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학과거든요. 경제수학은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교과기도 할 겁니다. 자, 수학과제

탐구입니다. 딱 나오죠. 과제 탐구,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보고서와 탐구활동을 하는 건데 자, 당연히

관련 학과는 수학 관련 학과입니다. 금융 관련도 있고 경제도
있어요. 고민이 생겨요. 보통 수학과제 탐구를 여는 학교는요.

경제수학도 엽니다. 기하와 벡터도 열어요. 고민을 해야겠죠.
자기가 상경계 쪽이라면 경제수학 쪽이 나아요. 그런데

상경계가 아니라면 수학과제 탐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문계라 하더라도 수학 쪽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수학과제 탐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공계 학생이라면
수학과제 탐구 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왜? 탐구활동이니까

자기의 학생부에 탐구활동이 조금 부족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제 탐구 교과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영어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사랑합니다.

자, 영어권 문화입니다. 출제 당연히 안 되죠. 진로선택이니까
대신에 보통 영어권 문화랑 영미문학 읽기가 보통 개설이 돼요.

2개 다 선택해도 되고 아예 선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좀 영어와 관련이 있어요. 특히 영어권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 관련 학과도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뭔가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영어권 문화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가
들어가잖아요. 문화가 들어가고 영어권 즉 영미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콘텐츠 같은 거를 좀 다루는
친구들은요.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미문학

읽기입니다. 자, 영미문학 읽기의 특징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이거는요. 교과서가 없고 이걸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책을 한 권

정해서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부담이 좀 적죠. 부담이 좀 적고
기본적으로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진짜 영어 관련

학과 혹은 문학 쪽 특히 문화콘텐츠 같은 거 있죠. 특히
인문계열 학생도요. 영미문학 읽기 선택하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어 원서를 읽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니까 교과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냥 원서 한 권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영미문학 읽기는 대학교에서 영문학 수업을 하듯이 아마

하실 겁니다. 물론 수업하시는 분도 고민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진로선택 교과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다양하게

수업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용영어는 아까
실용수학과 마찬가지예요. 영어긴 하지만 좀 레벨이 낮습니다.

물론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영미문학 읽기라든가
영어권 문화가 좀 부담이 되는 친구들.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기본적인 상경계열 중에서도 관광계열 있죠.
관광계열 쪽이라든가 어떤 스튜어디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용영어가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실용수학과는 좀 다르죠. 수학은 약간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수학 관련 학과 친구들을 위해 개설되긴 했지만
경쟁하기에는 다른 수학 교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다양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앞의 게 조금 선택하기에 부담이 되는 친구는 그런데 영어가 좀

필요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용영어를 선택을 해도 조금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진로영어도 비슷해요.

진로영어라든가 아니면 실용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앞의 거를 선택하기가 힘든 친구들은

이거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지리입니다. 일반선택이죠. 수능과 관련이 있는 교과예요.

당연히 수능 출제되고요. 25.3%의 작년에서 선택률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과와 관련된 학과로 갈 친구들은

한국지리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수능을 위주로 할
친구들도 한국지리는요. 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교과긴

하잖아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지리도 비슷해요.
수능 출제되고요. 수능에서 채택률은 15.5%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관련 학과는요. 한국지리랑 좀 비슷하죠. 지리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세계사입니다. 당연히 수능 출제돼요. 7.0%입니다.

세계사는 조금 어려워요. 보통 친구들이 역사를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1학년 때 한국사에 조금 많이 데인 친구들.

연도가 많이 나오니까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더 많아요.
특히 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 친구들은 세계사를 잘 선택을 안 합니다. 특히
수능에 출제가 되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7.0 정도 문과 같은

경우는 7.0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낮은 사람이 선택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그렇게 메리트가 많은 교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 덕후들 있죠. 그런 친구들
같으면 당연히 세계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약간 들어가서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사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학종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경쟁이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9등급 체계로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문화콘텐츠라든가
아시아문화학부 있죠. 뭐 중국어학과 이런 데들, 이런 데를 가는

친구들은 세계지리라든가 세계사 같은 경우는 좋은 선택은
될 수 있어요. 물론 엄청난 경쟁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동아시아사입니다. 세계사보다는 수능 비율이 좀 더 어때요?
높아요. 3%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동아시아사가 조금 더 다루기 쉬워요. 그리고 범위가 좀 적죠.
한중일만 하니까, 관련 학과는 당연히 역사 덕후들이 많이

오겠죠. 그리고 문화콘텐츠라든가 특히 한류 때문에

동아시아사가 조금 공부를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문화학부 친구들도 동아시아사는 학종을 위해서라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자, 옛날에 경제는요.

보세요. 수능 2.0%입니다. 교과가 어려워요. 학교가 개설이
돼 있어도 친구들이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경제 과목 자체가 없는 학교들이 정말 많았어요.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에도요. 경제 교과가 한동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경제가 오픈이
됐어요. 왜? 상경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경제는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상경계열을 가는 친구 점수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학종으로 상경계열을 지원하려면 경제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왜? 경제는 무조건 개설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변명이 통했어요. 저 경제 공부하고 싶었는데 학교가 개설을

안 해줬어요. 변명이 되죠. 이 학생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때요? 경제 지금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개설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또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종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교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수능에서는 선택을

안 하겠죠. 왜? 너무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법과 정치였고
지금은 정치와 법으로 바뀐 겁니다. 출제되죠. 10%예요. 높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어려워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치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법은 오죽하겠습니까? 법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관련 학과가 어때요?
정치외교학과, 국제학과, 행정학과, 경찰학과, 법학과. 뽑는

인원수가 많은 학과가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와

법은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선택교과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학생

책임입니다. 왜? 학교는 개설하거든요. 이제는요. 특히 수능에
나오는 일반선택 교과는요. 다 오픈합니다. 예전에는 다 오픈

못했어요. 학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개 두세 개는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오픈해줍니다. 일반선택이기

때문에 왜?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회문화입니다. 높죠. 56.3%입니다. 거의 인문계 쪽 가는

친구들은 사회문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회문화가
보세요. 사회문화와 관련된 조사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사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아이들이
사회문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한 과목 정도는 사회 과목 선택하거든요. 그 교과 중의 하나가
사회문화가 될 수 있어요. 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 가는 친구들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문화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수능에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선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회문화는 기본 옵션으로 갈 교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생활과

윤리입니다. 무려 61.3%의 학생들이 수능 교과로 선택을 했어요.
수능 교과에 인기가 많으니까 자기의 진로와 상관없이 당연히

일반선택 교과로 선택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윤리입니다. 윤리와
관련 없는 학과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생활과 윤리는 어디도

나와요?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보통 사회 교과는 하나
선택을 하거든요. 그 교과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원래 생활과 윤리는요. 정말로

문과에서 거의 필수 교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등급 따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오죠.

교과 자체가 쉬우니까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하나 정도 틀리면
정말로 2등급, 3등급이 확확확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공계

최고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의학계열을 진학할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의대는 대부분 면접을

봅니다. 학종에서 면접을 보는데 물론 교과 관련 면접도 보지만
인성 관련 면접을 무조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를

들을 만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윤리와 사상입니다. 12.6%죠. 생활과 윤리보다는

적어요. 자, 대신에 아까와 비슷했던 친구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학계열 친구들이 윤리와 사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철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철학 쪽으로 좀 논술 같은 거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윤리와 사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 중에 어느 게 더 공부하기 힘들까요? 당연히 철학 쪽이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몰릴까요? 여기에 올 확률이 높아요. 왜?

이게 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논술하고 특히 이제 국어가
어려워지잖아요. 국어의 비문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윤리와

사상을 듣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들이 성적대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성적대가 높은

친구들이 들어와. 왜? 이제는 약간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줄거든요. 선택교과다 보니까 어려운 교과를 선택하면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게 조금 후하게 봐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의 부담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좀 더 고급진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윤리와 사상이 인기가 조금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행지리입니다. 진로선택이죠. 부담이 없어요.

여행, 교통, 문화, 지리, 여행산업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광 관련 학과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여행지리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도 없어요. 사회문제 탐구입니다. 과제
탐구죠. 당연히 어떤 친구들이 올까요? 탐구활동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입니다. 대부분 그 정도의 학생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성적대가 있는 친구들이 되겠죠. 대신에 진로선택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어요. 당연히 들으면 좋겠죠.
사회문제 탐구는요. 탐구활동이 좀 적은 친구들은 탐구 관련

교과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더군다나 내신 부담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고전과

윤리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동서양고전, 논어, 철학, 정의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도덕윤리학과 특히 사범대 쪽에서 도덕 관련,

윤리 관련 친구들, 철학 쪽 친구들은 윤리와 사상이랑 고전과
윤리 선택해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자, 과학 쪽으로

가볼까요? 물리학입니다. 과학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수능 출제되고요.

2019 수능에서 24%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어요. 당연히
공학계열 친구라면 물리학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갈 전형이 학종이라면 무조건 필수예요. 물리학이 어렵죠. 수학
개념이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 물리학이 예전

물리보다 조금 쉽게 바뀌었대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물리학 대신에 약간

좀 공부하기 편한 지구과학이라든가 생명과학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종 시대기 때문에 물리학을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내신 따기 힘드니까
물리학 대신에 생명과학이나 화학 I 을 선택을 하고 대신에

물리학을 좀 들어야 되니까 동아리 활동을 물리 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학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물리학을
선택하고 물리학을 이수하고 성적이 있고 그다음에 물리 동아리

활동을 하면 어, 잘하는구나. 손뼉을 쳐줍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물리학을 선택 안 했어요. 다 알아요. 이유를, 어려우니까 선택

안 한 거 압니다. 그런데 동아리는 물리 동아리야.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평가 안 합니다. 기본

공학 쪽 계열은요. 물리학 I 이 내신 따기 힘들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줘야 됩니다.

공학에서는요. 필수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생명공학입니다. 무려 62.4%의 학생들이 수능에서 봐요. 당연히

생명 쪽, 의학 쪽, 보건계열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문과,
이과가 통합이잖아요. 이제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복지와 관련이

있어요. 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와 심리학 같은 거,

심지어 사회학까지 왜? 생명이랑 많이 연결되니까 건축학도
들어요. 왜? 건축학은 보통 요즘 뭘 고려해야 됩니까? 인체의

비율도 고려해야 되고 사람들의 어떤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공학 듣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 과목은 사회 과목보다는 이게 고르는 폭이
적죠. 8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그러기 때문에 공학계열

가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생명공학을 선택합니다. 거의
생명공학은 이공계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거의 필수 교양과목화

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비록 공학계열이긴 하지만 생명공학
선택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제는 신체 공학과

그냥 단순했었던 그냥 공학이 지금은 같이 접목되는 시대기
때문에 순수한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가는 친구들도요. 생명공학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화학입니다. 좀 어려워요.
생명공학보다는, 36%의 학생이 선택을 했어요. 당연히 화학계열

쪽 특히 생명계열 쪽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Ⅰ 과목 자체가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과학 쪽 가는 애들은 2개, 혹은 3개 다 선택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중첩이 될 거예요. 지구과학Ⅰ입니다. 무려 68.1%의

학생이 수능 선택을 해. 왜? 과학 4개 중에 그나마 지구과학Ⅰ이
제일 쉽게 선택을 해요. 왜? 암기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구과학Ⅰ은요.
자기의 진로와 상관없이 수능을 위해서 기본 옵션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능 쪽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선택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볼 교과로 지구과학Ⅰ을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과학Ⅱ

교과예요. 과학Ⅱ는 진로선택 교과긴 하지만 수능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수능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과학Ⅱ를

친구들은요. 거의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의 1%에서
3%까지밖에 선택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과학Ⅱ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울대가 수능에서 필수로 요구합니다. 수능 최저에서

무조건 필수로 요구해요. Ⅰ+Ⅰ 안 받습니다. Ⅰ+Ⅱ
과목이라든가 Ⅱ+Ⅱ 과목만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지균을

생각하는 많은 정말로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전교
1, 2등들이 과학Ⅱ 과목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Ⅱ

공부를 안 해요. 왜? 서울대는 성적을 보긴 하지만 지원만 하면
돼요. 지원만 하고 내는 성적은 Ⅰ과목을 내면 됩니다. 두 과목

중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Ⅱ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서울대를 갈 학생이 아니고서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과학Ⅱ 교과를 보통
개설을 안 했어요. 개설하더라도 소인수 교과로만 학종용

교과로만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오픈되잖아요. 오픈됩니다. 이전에는 똑같아요. 경제하고

똑같습니다.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어요라는 변명이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명이

안 통한다니까요. 왜?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학Ⅱ 교과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특히 물리학Ⅱ가 문제입니다. 이공계 쪽으로 가려는 친구는요.
물리학Ⅰ은 듣고요. 물리학Ⅱ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필수 코스예요. 예전에는 물리Ⅱ가 없어요라는 변명이 통했지만
지금은 없어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오픈되기 때문에

물리학Ⅱ 이공계 가는 친구들 특히 상위권으로 가는 친구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변명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신

진로선택이잖아요. 공부하기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당연히 해당
과학Ⅰ을 이수해야지 수강 가능해요. 3학년 때 나 물리Ⅱ

필요한데. 이런, 2학년 때 물리Ⅰ을 선택을 안 했네.
못 듣습니다. 나 3학년 때 생명과학Ⅱ를 들어야 돼. 2학년 때

생명과학Ⅰ을 듣지 않았네. 못 듣습니다. 무조건 관련된
과학Ⅰ을 들어야지 과학Ⅱ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학사와 생활과 과학은 출제가 안 돼요.
딱 제목에서 나오죠. 공부하기 편합니다. 과학사, 생활과 과학

거의 교양과목이겠죠. 그런데 보통 이 교과는요. 졸업 이수를
위한 과학교과 역할을 하는 거야. 즉 나는 인문계열 가고

싶은데 과학교과를 선택을 하나는 보통 선택 더 해야 되거든요.
하나를 추가로 선택해야 되는 교과로 과학사나 생활과 과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문과 학생들은 물리학Ⅰ,
생명과학Ⅰ, 화학Ⅰ, 지구과학Ⅰ 선택을 안 합니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교과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부담이 적은 과학사나 생활과 과학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 겁니다. 인문계인데 졸업
이수를 위해서 과학 교과가 필요한 친구들은요.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융합과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설 안 된 게 좀
많더라고요. 융합과학 쪽은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름이 주는 효과가 있죠. 융합과학 약간 과목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봤더니만 교육과 쪽, 과학 관련 교육과를 진학하는

친구들은 융합과학이 있으면 선택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 쪽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기본

수능을 위해서 생명과학이라든가 지구과학은 해야 돼요. 그런데
공대 학생이라면 물리학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3개

선택 교과를 과학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융합과학 쪽 같은 경우는 문과 쪽 학생들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융합과학을
선택하기에는 이미 선택을 다 해버렸어요. 다른 교과에서

그래서 만약에 융합과학이 있으면 상위권,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융합과학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상위권이 오기에는 조금 선택하기 힘든 교과예요.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선택교과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교과를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계 교과에서 진로선택 교과, 일반선택 교과로

개설되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진짜로 고민할 경우에는 제가 해줬던 설명도 보시고요.

자기의 진로와 적성 그리고 학교에 개설된 여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는지까지 고려해보셔서요.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달라진 대입 체계에서는요. 어떤 교과를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4강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피처링으로 진로선택교과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